

大學의 이념과 社會改革

金 安 重

(서울大 教育學科)

1. 序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직 이른 감이 없지는 않은 듯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改革’이라는 단어가 日常化되다시피하고, 사회 각 분야의 최우선적인 당면과제가 바로 ‘改革’이라는 두 글자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물론 教育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이에서 ‘改革’의 바람이 가장 적게, 가장 소리가 나지 않게 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教育界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아니, 아예 그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한 것이 這問의 教育界 형편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사람들 중에는 “교육계는 왜 이리 조용한가.” “이렇게 조용해도 괜찮을 것인가.”—유행하는 俗語的 표현이기는 하나—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무슨 ‘改革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改革이라는 이름 아래 무슨 사람 쫓아내자는 식의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그 외침에 필자는 필자 나름대로의 관심과 희망

과, 그리고 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이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과 관련해서 대학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이 글의 한 가지 목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 필자로서는 教育이라는 일 그 자체의 성격에 관해서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大學도 명백히 教育을 위한 기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아가서 한 국가에서 大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옳으면 옳을수록 教育 그 자체를 먼저 말하는 것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大學改革’과 그것이 社會改革과 맺는 관련을 알아보려고 한다면—이 글에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그에 앞서 ‘教育改革’과 그것이 社會改革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먼저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아래에서 스스로 드러나기를 바라지만, 이 말은 곧 ‘改革’의 教育的 의미를 밝히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라고 필자는 믿는다. 教育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教育學者마다 달라질지 모르지

만, 오랜 역사와 문화전통을 가진 우리 국민으로서 본다면 어떤 것이 ‘教育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비교적 명백하다. 그리고 필자의 공허한 의침으로 흘려버릴지도 모르지만, ‘改革’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조치나 행위나 인간활동들은 반드시 教育的인 기준에서 보아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政治의 분야에서건 經濟 분야에서건 또는 그 어느 다른 분야에서건 간에, ‘改革’이라는 이름하에 과히 교육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조치나 행위들을 수행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다. ‘教育的인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인류에게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이다. 영국의 知性이 낳은 오우크쇼트(Michael Oakeshott, 1901~1990; *Rationalism in Politics*, 1962)의 표현대로, 인류가 만들어 사용한 概念으로서 ‘教育’만큼 고귀한 개념도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하물며 ‘教育改革’이라는 조치 속에 흑시라도 그런 非教育的인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비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教育의 의미

教育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들어있다. 하나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문명의 전수와 발전이라는 측면이다. 교육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획득하기도 하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필자는 教育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측면이라고 부르겠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받고있는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고, 남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구속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과나 전공, 진로, 그리고 때로는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까지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教育熱’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대부분 教育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사

사로운’ 측면의 부각이라고 말해서 틀림없을 것이다. 해방후 우리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學科’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후에는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하여 개인으로서 보다 잘 살게 되기를 바라왔다. 이 소박한 바람이 바로 우리나라 대학의 팽창의 역사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오늘날 거의 누구나 대학을 가고자 하게 하였고, 또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教育의 목적은 명백히 개인이 개인으로서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통로인에 틀림없다.

그러나 教育의 의미 속에는 또한 개인을 넘어서는, 개인의 욕구와 願望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다른 측면도 들어있다. 이것을 필자는 교육의 ‘公的인’ 측면이라고 부르겠다. 그것은 곧 교육이 인류의 문명된 삶의 방식을 世代와 世代 간에 전수하고 전수받는 일이라는 데에서 드러난다. 인간은 개인으로서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또한 種 또는 類로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개체로서의 인간은 소멸하지만, 種으로서의 인류는 멸망이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에는 歷史가 없지만, 人類의 삶에는 歷史가 있다. 이렇게 類的 存在로서의 인간의 永続性—또는 歷史性—은 오직 教育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왜냐하면 教育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敎科와 學問과 그 외의 일체의 文化的 遺産은 바로 인류를 인류로서 존재하도록 만드는 理由이고, 教育은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活動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습하게 되는 敎科와 學問의 세계는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願望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源泉이며, 오직 그것을 학습함으로써만 인간은 인간다운 특성을 구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추구하는 일체의 가치로운 일들도 모두 人類가 그 歷史를 통해서 추구해 온 가치로운 世界, 딜타이(Wilhelm Dilthey)가 말한 바 ‘精神世界’(die geistige Welt) 속에서의 일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가 말하는 教育의 ‘公的인’ 측면이란 곧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해주는 일체의 특성들—이들을 하나의

전체로서 부를 때 우리는 ‘인간다움’ 또는 ‘人格’과 같은 표현들을 쓰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특성들은 학교에서 敎科와 學問의 形式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학습되는 것이다.

敎育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公的인 측면은 근대에 와서 상당히 희석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經濟的 富와 物質的 豊饒가 곧 인간다운 삶의 전부인듯 여기는 資本主義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民主主義라는 社會的인 이념 및 그와 결부된 생활양식이 敎育의 사사로운 측면을 중시하고 公的인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더욱이 20세기는 듀이(John Dewey)의 進歩主義 敎育思潮가 전 세계를 풍미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進歩主義의 敎育理念은 그의 民主主義에 대한 신념과 결부되어 아동의 개성과 흥미와 동기를 敎育에서 무엇보다 중시하는 흐름을 가져다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해방후 우리의 전통적 敎育활동을 대치한 것이 바로 미국의 敎育사조였고, 비록 미국에서처럼 아동중심의 敎育실천이 뒤따른 것은 아니었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敎育을 보는 관점이나 敎育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그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민주사회에서의 敎育은 곧 大衆敎育을 의미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大衆이 중시하는 것은 곧 물질적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과 태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敎育을 받고자 하는 동기는 인류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유산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公共的의도나 목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敎育은 전통적인 학문이나 敎科를 경시하는 가운데 대중사회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생산과 소비와 여가활동에 관련된 정보나 기능을 전달하는 데에 치우쳐 온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정보, 보다 값비싼 기능이나 기술이 바로 ‘敎育消費者’로서의 大衆이 敎育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敎育을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代理戰爭’의 장소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敎師는 더 이상 스승으로서 간주된다기보다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을 공급해주는 또 하나의 業種(소위 ‘知識產業’)에 종사하는, 그 자신이 大衆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서 간주될 뿐이다. 그 결과로서 오늘날 교사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빈약한 위치와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별로 어색함이 없는 느낌 같은 것들도 우리의 통념처럼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敎育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은 敎育을 敎育다운 것으로 되돌리는 일에 있다고 보여진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하고—학교는 학원이 아니지 않은가—,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만약 敎育이 拜金主義의 희생물이 되고, 학교가 생존경쟁의 전쟁터가 되고, 교사가 학생들의 장래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전달하는 중간상인의 역할에 만족하고, 학생이 인격의 도야에는 무관심한 채 성적과 학위와 졸업장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면, 국가의 나머지 모든 일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3. 大學의 理念과 社會改革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학은 敎育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敎育이 敎育다워져야 한다는 말은 이제 대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학은 대학다워야 한다. 이것이 社會改革이라는 큰 命題 앞에서 우리의 대학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삼아야 할 명제이다. 문제는 대학이 대학답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학이 대학답다는 것은 대학이 그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예비적 고찰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곧 대학도 ‘學校’라는 제도의 한 부분이라는 점과, 따라서 ‘學校’라는 곳이 원래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도인가를

고찰하는 일이다. 서양에서는 학교를 ‘스쿨’(school)이라 부른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 말은 원래 고대 희랍어인 ‘스콜레’(scholē)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스콜레라는 語源의 의미와 관련된 한 가지 오해가 오랫동안 퍼져있었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희랍어에서 이 말은 ‘餘暇’를 뜻하며, 따라서 ‘學校’란 餘暇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이나 보고 實生活과 동떨어진 고담잡론이나 별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생각은 역사적으로 학교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를 퍼뜨려왔고, 보다 적극적으로 ‘學校’라는 아이디어—그 概念—를 부정하고 그것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는 시도들을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고대 희랍어에서 ‘스콜레’라는 말이 ‘餘暇’를 뜻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이때의 餘暇란 물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餘暇를 가진 사람들이란 곧 고대 사회의 貴族들이나 지배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學校’라는 것은 貴族와 지배계층의 專有物을 뜻한다는 점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여기에서부터 학교와 교육에 대한 온갖 오해와 엄청난 왜곡이 시작된다. 우선 학교는 무엇을 ‘위한’(=教育目的) 곳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지배계층과 귀족계급의 지배체제와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곳이 학교라는 대답이다. 다음, 학교에서는 무엇(=教育內容)을 가르치는가? 귀족과 지배계층이 필요로 하는 것, 곧 자신들의 지배적인 위치와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데에 필요한 일체의 지식과 기술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라는 대답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어떻게(=教育方法) 이 일을 수행하는가? 학생들의 개성을 억압하고 권위에 의한 강요와 복종을 요구하는 ‘訓育法’(discipline) 또는 ‘懲戒와 體罰’에 의한 방법이 그것이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오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식과 학문과 敎科를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정신적 활동들에 대한 왜곡과 오해도 함께 따라다닌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지식이니 학문이니 교과니 하는 것은 모두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허

구적인 관념들의 체계로서, 피지배 대중의 삶과는 동떨어진 아무 의미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이나 주장들을 ‘오해’나 ‘왜곡’이 아닌 ‘正論’으로서 확립하려 했던 것이 마르크스主義였다. 인간의 정신활동과 정신문명을 ‘下部構造’—물질적 삶의 조직체계—의 부산물이라 여겼던 이 이념은 가히 ‘世紀的 誤解’라고 불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동안, 그러니까 19세기말과 금세기 전반 동안,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혼란과 변동을 겪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오해를 푸는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겠다. 학교라는 말의 西洋語源에 ‘餘暇’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餘暇’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그 관건이다.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배우러’ 가는 곳이다. 아이들이 배우려는 것이 가정을 포함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아이들은 집을 떠날 필요가 없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냥 배우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는 이렇게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그냥’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학교를 따로 세우고 敎師와 教育課程과 일체의 다른 교육적 제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이렇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냥’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孟子는 그것을 ‘義’라 불렀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냥’ 알게 되는 것을 ‘利’라 불렀다. 그는 말하기를 ‘利’라는 것은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義’라는 것은 힘써서 가르치고 뉘도록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른다고 하였다. 여하튼 인간의 삶에서 ‘그냥’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學校’라는 점은 東西洋에서 차이가 없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상생활로부터 ‘떨어져서’만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떨어짐’, ‘隔離’라는 의미가 바로 고대의 희랍인들이 ‘스콜레’라는 이름을 학교에 갖다붙이게 된

이유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餘暇’란 일상생활로부터 한발짝 떨어졌을 때에 갖게 되는 餘裕, 精神的 餘裕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정신적 여유 없이는 ‘올바른’ 인간, 孟子가 말한 ‘義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은 불가능하다. 이제 ‘學校’는 한가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시간보내기 식의 고담준론이나 하는 곳이 아니며, 지배계층이 담합하여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영속화하는 데에 필요한 ‘知識’이나 ‘學問’이나 ‘價値觀’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곳이 아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해 누적되고 발전해온 학문과 교과와 그 외의 지식의 체계들이 그런 ‘숙임수 같은’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것은 인간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와 같은 것이며, ‘영원히 인간을 숙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허무주의나 케번론과 동일한 것이다.

다시 대학의 문제로 돌아가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어떤 ‘이념’ 또는 그 비슷한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언필칭 진리탐구니 인격도야니 하는 표현들이 우리의 대학설립 목적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함으로써만 국가발전과 사회개혁이라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자명하다면 자명하다. 그렇다면, 다시, 무엇이 우리 대학의 문제였다는 말인가? 그 대답은 정말 자명하다. 우리의 대학이 내어 건 이념과 목적이 껌데기뿐이었다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이 소위 ‘改革의 時運’에 대학이 그에 발맞추어 새로이 내걸어야 할 별도의 이념이나 목적이 있을 수 없다. 대학이 대학다워지도록 하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회도 대학에 대해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그때 그때 소용되는 것들을 마구 주문할 일이 아니다. 사회가 할 일은 우리의 대학에 대해서 그 원리 해야 할 일을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일뿐이다. 대학은 돈이 없다. 아니, ‘학교’라는 이 ‘격리된 장소’에 돈이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학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 붓다와 같은 聖人은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탁발(托鉢),

곧 ‘구걸하는 일’을 制度化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이 물질시대에 와서 대학교수들이 사회에 나가 ‘구걸’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대학에 연구비 많이 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이 물론 아니다. 이 글의 실제적 함의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연구비제도—소위 ‘프로젝트’ 제도—와 잘못된 사회적 관행 때문에 연구실을 지키고 외부(요즘은 주로 텔레비전과 신문)에 나가다니지 않는 교수들이 교수다운 대접을 못받게 되는 대학풍토가 사라져야 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은 앞에서 말한 바 ‘學校’의 최종점에 있는 또 한 가지 形式의 학교일 뿐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인류문명의 전수과정이 대학에 와서 그 완성을 보게 된다. 種族의 일원으로서의 인간 개개인이 자신이 왜 ‘인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대학이라는 곳이다.

이 일은 물론 ‘日常’에 파묻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은 대학만이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코흘리개 국민학교 시절부터 이 일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국민학교 교사들이 오히려 대학교수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욱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회는 이제 ‘교사’와 ‘교수’들이 이 일에 전념하도록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해방후 우리의 敎育史는 사회가 이 일을 도와준 역사이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해온 역사라는 감을 지우기 어렵다. 돈을 벌려면 학교 바깥에서 벌어야 하고, 학교를 그 일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출을 늘리고 총생산을 늘리려면 학교 바깥에서 바깥 사람들이 해야 하지, 학교를 그 일에 끌어들이거나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政變이 일어나서 세 권력을 정당화하려면 학교 바깥에서 바깥 사람들이 할 일이지 학교를 그에 관련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완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어떤 부당한 外的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結

필자는 학교 '바깥'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대학인들은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學校財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특히 우리의 私學財團이 현재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든 대학인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을 '외부'에서만 구하려는 태도가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원전 3세기에 최초의 大學이라고 일컬어지는—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아카데미아'를 세울 때, 플라톤은 외부의 '用役'으로 大學財政을 배우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그는 붓다의 태도에는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동자들이 자신의 학교를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의 지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왔다. 이와 유사한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학교를 세우지 말았어야 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지금 언론에서는 교수들의 자질과 '근무태만' (?)이 단골메뉴처럼 되어있다는 느낌이 짙다. 대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전적으로 그러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우리의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리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학교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만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아니 '가르치는'—일이고, 이 일에서는 '능력'보다는 '됨됨이'가 더욱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할 줄 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인간이 '되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됬됨이를 人格이라 부른다면, 한 개인의 人格은 반드시 그 개인이 '할 줄 아는 것'의 총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학교교사와 대학의 교수들에게도 이 점은 중요하다. 대학이 대학 바깥 사회의 이리저리한 요구들을 따라서 소위 '奉仕機能'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봉사의 대가로 남게 되는 연구비 액수에 대한 기록과 연구보고서 편수에 의해서 측정되는 교수의 '능력'만을 전부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일년내내 집과 학교 사이를 오가면서 연구실에서 책만 보고—책을 보는 것이 '研究'의 전부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다—강의실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교수의 '능력'은 그런 숫자 높음으로는 드러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논문이나 저술의 '編數'만큼 우리나라의 대학교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오도하는 것도 드물다. 외국 대학과의 編數비교를 앞세워서 교수사회를 폄하하는 일도 따라서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점을 거꾸로 보면,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반성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가도 자명하다. 논문이나 저술의 편수를 늘리려 할 것이 아니라 논문다운 논문, 저술다운 저술이 요청되는 시대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수들에게 해결 철학—또는 다른 어떤 것—에 관한 논문 한 편을 쓰겠느냐 해결의 저술 한 편을 번역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모두 논문을 쓰겠다고 말한다는 지적은 참으로 우리가 씹어 보아야 할 지적임에 틀림없다. 논문은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만, 번역은 '원본과의 대조'에 의해서 적당히 넘어가기 어렵다는 이유, 이 숨은 이유 때문에 교수들은 논문쓰기를 번역하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들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은 매우 많지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한 마디 말이 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만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학생 중에서 가장 학생다운 학생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다운 학생으로 지내다가도 대학에 오면 완전히 변신해버리는 것이 사실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복잡해진다. 분명한 것은 학교 중에서 가장 학교다워야 할 곳이 대학이고, 선생 중에서 가장 선생다워야 할 사람이 교수이고, 학생 중에서 가장 학생다워야 할 사람이 대학생이라는 점, 이 점은 필자의 눈에 분명하다. ■